



광주 충장로·금남로 일대 부끄러운 광주 관광 1번지 수십 차레 야간단속 한계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지난 1일 광주를 찾은 대전지역 어린이집 원어린 교사 엘리아 클레어(여·23·미국)씨는 충장로·금남로 일대를 뒤덮은 쓰레기에 깜짝 놀랐다.

그는 “커피를 담았던 플라스틱 컵, 음료수 캔 등이 곳곳에 널부러져 있는 게 쓰레기장 같다”고 말했다.

그는 3년 전 자신이 처음 한국 생활을 시작했던 광주를 동료에게 소개시켜 주겠다고 광주를 찾았다가 아시아문화전당 일대 등 주요 관광코스마다 방치된 쓰레기 더미로 눈살을 찌푸려야 했다.

광주 도심 1번지인 충장로·금남로가 각종 생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5·18의 역사적 상징성을 담은 구 도청 등 건물이 존재하는데, 광주비엔날레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준공 등을 계기로 광주를 찾는 해외 관광객들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반적인 점검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기 쓰레기는 스스로 책임지는 시민의식도 절실할 요구되고 있다. 테이크아웃 커피 뚜껑 및 컵, 캔, 비닐 등 재활용 폐기물이 늘어나는데도 처리할 쓰레기통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때 도심 미관 훼손 등을 이유로 설치하지 않던 길거리 휴지통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동구가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로 지정한 83곳 중 ▲광주YMCA 등 충장로 일대 ▲전남야구후문 사거리 ▲옛 신동아극장 골목 등은 하루 평균 쓰레기 불법 배출량이 1~3위

전문화전당 주변 쓰레기 천지 이라서 손님맛이 하겠습니까?



지난 3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1가 입구 S커피전문점 앞 보도가 인근 상가와 행인들이 버린 쓰레기로 넘쳐나면서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를 차지하는 ‘관심지역’이다.

버스정류장 등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광주YMCA 앞 인도의 경우 하루에만 무려 4000ℓ의 쓰레기가 불법 배출되는 실정이다.

동구지역 하루 전체 불법 쓰레기 배출량(1만7680ℓ)의 5분의 1에 이른다. 이 일대 쓰레기 수거하는데만 29명이 달려볼지라도 치워도 치워도 쌓이는 탓에 ‘티’도 안난다는 게 동구 설명이다. 행사라도 있는 날이면 훨씬 심하게 쓰레기 적치량 수준으로 변한다. 오전에 청소원들이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와 시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만 한 시간이 넘게 걸리는가 하면, 이 과정에서 약취가 진동해

걸어나기도 역겨울 지경이다.

15년째 대를 이어 광주YMCA 건물 1층에서 약점점 운영 중인 권모(34)씨는 “해물 거둬들일수록 가게 앞 인도에 버려지는 쓰레기양이 늘어만 간다”며 “특히 해가 저물고 밤이 되면 가게 앞은 쓰레기 폭탄을 맞은 모습으로 변해 손님 대하기가 민망할 정도”라고 말했다.

동구가 ‘나몰라라’ 손을 놓은 것도 아니다. 불법 투기를 막겠다며 올해만 40차례에 걸쳐 야간 단속을 나갔고 적발도 23차례나 했지만 그때 뿐이다. “몇 시간만에 가보면 쓰레기 ‘탑’이 쌓여있을 정도로 쏟아지는 쓰레기가 어마어마하다”고 담당자들은 하소연한다. 무작정 길거리

휴지통 설치를 확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불법 쓰레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데다, 쓰레기통 관리·운영 비용을 감안하면 선뜻 확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꽃밭 조성 등을 통한 대안을 고민하지만 성숙한 시민의식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

동구 관계자는 “새벽 6시에만 이뤄지는 쓰레기 수거를 1~2차례 더 늘려가야 쓰레기 투기가 심한 곳에 꽃밭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면서 “자기 쓰레기는 스스로 처리하는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女警 공채 101 대 1

광주경찰청 4명 모집에 405명 몰려...경쟁률 전국 최고

광주지역 취업 준비생들의 경찰에 대한 인기가 대단하다. 안정적인 직업이다. 산업기반이 취약해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지역적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014년도 제 2차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4명을 뽑는 여경 공채에 405명이 지원해 10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4일 밝혔다. 광주청의 여경 공채 경쟁률은 전국 16개 경찰청의 순경 공채 경쟁률 중 가장 높다는 게 광주청 설명이다.

광주청은 또 16명을 모집하는 남자 공채에도 979명이 응시, 61.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남자 경쟁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광주청의 경우 올 1월 이뤄진 1차 순경 채용시험에서도 남자 31대 1(80명 모집에 2466명 지원), 여자 36대 1

(20명 모집에 711명 지원) 등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2009년에 인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반영된데다, 538대 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엄중한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당시 여경은 현재 동부서경무과에 근무중이다.

전남경찰청은 남자 21.4대 1(30명 모집에 643명 지원), 여자 33.8대 1(10명 모집에 338명 지원)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북경찰청의 남자 공채 경쟁률(50.3대 1·14명 모집에 705명 지원)도 높았다.

경찰청은 올해 제 2차 순경 공채시험 경쟁률의 경우 3560명 모집에 역대 최다인 6만1297명이 응시, 1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다른 지역보다 공직 선호도가 높으니까 선발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높은 경쟁률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

전문대 수시 내달 3일부터 모집 시작

전체 인원의 82.3% 선발

2015학년도 전문대학 수시 모집이 오는 9월 3일부터 일제히 시작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137개 전문대학의 2015학년도 수시모집 주요사항을 4일 발표했다. 올해 수시에서 전문대학은 전체 모집인원의 82.3%에 해당하는 18만6005명을 선발한다. 수시 인원이 작년보다 감소했으나 전체 모집 인원이 더 감소함에 따라 수시 비중은 작년보다 1.9%포인트 증가했다. 전형별 모집인원은 일반전형이 6만890명(32.7%), 특별전형은 12만5115명(67.3%)이다.

올해 수시부터 모든 전문대학이 원서접수를 1차는 9월 3~27일, 2차는 11월 4~18일에 같이 실시한다. 지원이 6회로

제한되는 일반 대학과 달리 전문대학은 수시 지원에 제한이 없다. 전형방법은 학생부, 면접, 실사, 서류 등 4개 요소 중 1개 또는 2개만 활용하는 것으로 간소화됐다.

합격선정 여부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학생 평가 시 산업체 인사가 필수로 참여하는 ‘비교과 입학전형’의 선발 인원은 15개교, 1천313명으로 작년보다 162명 늘었다. 올해부터 전문대학 6개교에 ‘부사관 학군단’이 신설·운영된다. 육군 3개교, 해군·공군·해병대가 각 1개교다. 2015학년도 3월에 입학하는 신입생 등을 대상으로 대학별로 30명씩 모두 180명의 부사관 후보생을 선발한다. 이번 수시에서는 ‘동률조연 이벤트’와, ‘승마산업학과’, ‘포렌식 정보보호과’ 등 이색학과에서 학생들을 선발한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체급 경기팀 운영 초·중·고 107개교 특별 점검

유도부 여중생 사망사건 계기 시·도교육청 실태조사 나서

유도부 여중생이 무리하게 체중감량을 하다 숨진 사고를 계기로 광주·전남 교육청이 체급경기팀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4일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체급 경기팀을 운영 중인 광주·전남지역

초·중·고 107개교에 대해 특별 점검한다.

광주는 체급종목 7종목에 34개교 43개 팀 502명의 선수가 활동하고 있다. 전남은 73개교 73개 팀에 650명이다.

광주·전남 교육청은 이들 학교와 경기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체육부 운영현황과 체급경기 선수 관리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훈련 및 시험 준비기에 체중조절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교육청이 지침으로 내려 보낸 안전사고 예방

수칙 등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등 세부적으로 특별점검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점검 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드러난 학교와 팀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유도부 여중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를 시행해 선수 관리 지침서 상의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전체 선수들을 대상으로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는 상담과 코치진을 대상으로 특별 연수를 교육청 주관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사망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관실과 협의해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에 나설 방침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체급경기는 체중과 관련된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어린 선수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도자들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모르는 남성들과 술자리 추태 착각...알고 지내던 여동생 뺄 '찰싹'



○...평소 알고 지내던 여동생이 모르는 남성들과 술을 마시면서 추태를 부리는 것으로 착각해 폭력을 휘두른 50대 여성이 경찰서행.

○4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안모(여·53)씨는 지난 3일 밤 10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임동 자신의 식당에서 이모

(여·44)씨의 얼굴에 물을 끼얹은 뒤 뺄을 한 차례 때렸다는 것.

○...안씨는 이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는데, 경찰에서 “동생(이씨)이 모르는 남성들과 술을 마시는 줄 알고 집에 보내려고 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순간 화가 났다. 서로 아는 사이인 줄 몰랐다”고 진술.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 건물

북구 우산동 구호전앞 무등 장례식장 사이 7층 건물 사우나 건물

대지 96평 / 건평 570평

월수익 800만 주안직접 운영시 1,100만

현재성업중!

매가 11억 (보2억 용4억5)

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2층 상가건물

대지 205평 1층 100평(전용 70평)주택 2층 80평(전용 70평) 6칸

매가 2억5천 월보중금 2천 월 200만원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목포시 용해동 APT 단지 옆 전원주택

대지 310평 주택 2채 50평 무화과 나무 식재됨

월 보중금 2천 월 110만원

북구 우산동 7층 사우나 건물

대지 96, 건 570평

월수익 900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1,100만 수익)

매가 11억 (용 4억5)

참신한 010-6670-9800 062)952-5584

신축원룸매매

용봉지구

신축 4층 전대 정문 2분 전대후분 2분

룸12개 1층 점포2개 4층 주택

월수익 500만 매가 6억7천 (보4천 용1억2천)

신축 4층 원룸 매매 룸21개 (1층 상가, 용 18개) 월수 800 매가 8억

신축 4층 원룸 매매 룸18개 (4층 고급주택) 월수 800 매가 12억

전대 예술대 룸 10개 매가 4억 2천

원룸(3억~20억) 다량 있습니다.

용봉지구 미래도 APT코너

룸21개 전망좋은 1층상가 2칸, 4층 주택, 옥탑 1개 엘리베이터, 원비, 정남향, 전원 대리석 벽돌시공

매가 11억8천 (보2억 용3억)

월수익 900만 (1년 수익 1억1천)

010-6832-9700 062)512-8080

(주)대신경매

경매의 모든것을 가족처럼 편안하게 컨설팅 합니다. 건축분야·신축·설계·리모델링 무료 컨설팅 해드립니다.

근린시설

- 북구 매곡동 근린시설(토지1735㎡, 건2303㎡) 감정 30억6, 최저21억(유통마트적합)
- 서구 지평동 상무지구 근린시설(토지1599㎡, 건17380㎡) 감정 223억, 최저223억(상무지구 중심가)
- 서구 치평동 근린시설(토지4756㎡, 건1478㎡) 감정 276억, 최저276억(상무지구)
- 북구 신안동 근린시설(토지951㎡, 건2652㎡) 감정 26억, 최저11억(신안사거리 대로변)
- 북구 오치동 근린시설(토지338㎡, 건659㎡) 감정 5억, 최저5억(오치대로변)
- 동구 대인동 근린시설(토지780㎡, 건1992㎡) 감정 24억, 최저17억(대인동 대로변)

근린주택

- 북구 두암동 근린주택(토지112㎡, 건200㎡) 감정 3억8천, 최저1억1천(두암동)
- 북구 유동 근린주택(토지229㎡, 건608㎡) 감정 1억6천, 최저2억6천(유동 대로변)
- 동구 충장로 근린주택(토지155㎡, 건454㎡) 감정 3억4천, 최저1억9천(충장로 530코너)
- 북구 오치 근린주택(토지69㎡, 건114㎡) 감정 1억6천, 최저7천4백(오치동)
- 북구 운암동 근린주택(토지69㎡, 건114㎡) 감정 7천2백, 최저5천(운암동)
- 북구 신안동 근린주택(토지138.8㎡, 건202㎡) 감정 2억4천, 최저1억7천(신안동)

호텔

- 광산구 쌍암동 호텔(토지1182㎡, 건2289㎡) 감정 32억, 최저22억(쌍암동 코너)

대지

- 동구계림동 대지(토지511㎡) 감정 6억9천, 최저3억8천(광주강동 공터)
- 광산구 소촌동 대지(토지1956㎡) 감정 20억, 최저14억(광주속간도로, 송정역 부근)

경매 직원구함, 부동산 직원구함

경매가족처럼 가족처럼 같이하실분/사무실 공동사용/광동투자가능합니다. (경매, 부동산 컨설팅, 건설, 시항, 설계, 부동산관련 전체를 취급합니다)

커피숍 급매매(중심사 등산로 중심도로 점)

보3천 월300만 시설비 별도 최고시설

참신한 010-6670-9800 062)952-5584

상가매매 수익성상가

- 수원지구 상가매매3층 한술빌딩(4층3층) 85평 신원은행 뒤,모아엘가 상가(월)매가3억5천보3천 용2억5 (월수익 200만, 1년 2400만)
- 수원지구 상가 매매 3층(엘스타빌딩)(4층3층) 62평 롯데마트 옆 서하남 공단 쪽매가 2억5천보2천 월 150 용9천
- 삼전지구 상가매매2층(대성오션스파) (6층중 2층) 62평(부영APT) 매가1억7천보1천 월70 용9천
- 나주시 상영동 2층 학원건물매매 매가2억5천 토지205평 건135평 용1억2천
- 북구 신안동 2층 상가주택매매 매가 4억2천 신안사거리 무등경기장 쪽
-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대340, 전 50 주택 2채 매가 3억1천)

- 쌍촌동원룸형 오피스텔매매(2층)운천역 1번 2층(물수리 전체제출 신규교체, 임대료, 주인거주가능) ①11평 매가3천4백보200 월27 용1천
- 상무지구 오피스텔매매(3층 정면)(한국은행 앞 상무지구 현대 APT) 30평 매가 1억8천 월1천 → 1억5천(용 6천가능)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매매48평(사무실안테너이 무료제공) 매가 1억5천 월1천 → 1억2천 (즉시입주가능 사비없음)
- 상무지구 오피스텔 매매(6층) ①15평(수립)6층롯데마트 동쪽인근 위치매매가격 8천 ②10평(수립6층) 임대보증금 5백~38만원 매매가 5천만월
- 북구 우산동 사우나 건물 7층 (대96, 건564) 수익 900 월11억
- 광산구 오림동 8층 건물(대500천, 건 700) 1층 상가 120평 룸 58개 월수익 2500 매가 35억
- 신축원룸 4층 북구 용봉지구 룸 21개 월수익 8001층상가 2, 4층 주인주택 매가 11억8천
- 신축원룸 4층 북구 중흥동(전대정문 2분) 룸 12(1층 점포1칸, 4층 주택) 월수익 500 매가 6억7천

주)수아 010-6832-9700 062)512-8080